

# 나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백화현\_ 관악중학교 교사 **가슴 찡한 이야기들**

벌써 한 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을까, 하며 되돌아보니 남겨진 발자국들이 벌써 뿌영네요... 한 해를 갈무리하는 12월. 앞만 보며 허겁지겁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와 내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웃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쯤 깊은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나 결코 그래선 안 되었던 이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한 책들이 나왔기에 소개합니다...

### 《할머니의 비밀》

장 프랑수아 사바스 지음 | 김주열 옮김 | 변영미 그림 | 창비이동문고 | 196쪽 | 값 6,000원



할머니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고? 아이들에게는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꼬끼리 가족처럼 두껍고 쪼글쪼글한 얼굴에 이상한 냄새까지 나는 할머니. 이런 할머니가 어느날 갑자기 “죽을 때까지 너희와 함께 살란다”라며 다짜고짜 밀고 들어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게다가 혼자 자유롭게 쓰던 자신의 방을 함께 써야 하고,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 부스럭거리고, 저녁에는 시끄럽다고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는 할머니. 바로 미키의 증조할머니가 그런 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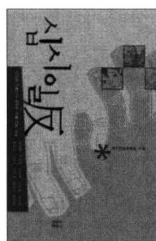
미키는 시골에서 살던 증조할머니가 어느날 갑자기 전화로 통보를 한 후, 가방 하나 달랑 들고서 자신의 방으로 쳐들어왔을 때, 마치 지옥의 마녀라도 만난 기분이었지요. 미키뿐 아니라 아빠와 엄마 역시 드러내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미키는 할머니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일기장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키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할머니의 모습이었지요. 할머니도 예전에는 부모의 사랑을 담백 받는 꿈 많은 소녀였던 말이지? 그럼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저렇게 식구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고목껍질처럼 거칠고 쪼글쪼글해 질 수 있는 것일까? 미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할머니의 일기장을 틈만 나면 몰래 꺼내 읽게 되지요. 그러는 동안 미키는 점점 할머니의 걸모습 뒤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거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자기를 싫어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음도 이해하게 되지요.

이 책은 가족이 함께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쉬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

다. 모두 함께 읽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나눠보고, 혹 식구들 중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 마음도 깊이 들여다보면 좋을 듯합니다. **★**

### 《십시일반》

박재동 외 지음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 창비 | 216쪽 | 값 9,000원



“가난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 이렇다할 학벌이 없고 내세울 집안이 없고 ‘뺨’ 없는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손쉬운 차별의 대상이다. 비장애인, 남성, 이성애자, 내국인들의 우월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희생양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다.”

2002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좀 바쁜 만화가’ 10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 함께 모였었다고 합니다. 십시일반+匙一飯하는 마음으로, ‘인권’이란 밥 한 그릇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었지요. 1년 후, 드디어 그들은 각각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 우리 사회의 차별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우리 앞에 디밀고 있습니다. 박재동 손문상 유승하 이우일 이희재 장경섭 조남준 최호철 홍승우 홍윤표가 꿈꾸는 차별 없는 세상. 현재의 모순과 불평등을 뒤집기 위한 그들의 시도가 어찌나 놀랍고 가슴 아픈지, 읽는 내내 눈시울이 뜨거워진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읽고 토론해 보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을 잠깐 할애해서라도 학생들에게 모두 읽힌 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이야기를 골라 그 이유를 말해 보게도 하고, 이들이 던지는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고 토론할 수 있게 하면 매우 좋을 듯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